

광주FC, 전용구장서 팬과 함께 첫승 찬가 부른다

K리그1 16일 강원과 홈경기 첫 입장 팬들에 승리 선물 다짐 전남, 안산 원정...승점 사냥 재개

프로축구 광주FC가 전용구장에서 팬들과 승리 찬가를 부른다.

광주는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강원FC와 2020 K리그1 16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많은 의미를 가진 경기다.

광주는 지난 7월 27일 수원삼성을 상대로 광주축구전용구장 개장경기를 가졌다.

사실상의 테스트 경기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경기 운영 상황 등을 테스트한 뒤 K리그 경기 개최 공식 승인을 하면서 광주는 남은 시즌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다.

'진짜' 안방이 된 경기에서 치르는 경기이자 팬들과 함께 하는 첫 경기다. 지난 1일부터 K리그 관중

입장이 허용됐고, 인천과 포항을 다녀온 광주는 이번 강원전을 통해 처음 팬들을 맞는다.

새 구장에서 팬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광주는 승리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창단 10주년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 광주는 분위기를 살려 무패행진에 도전한다.

광주는 지난 11라운드 인천원정에서 엄원상의 멀티골과 펠리페의 썬기골로 3-1 역전승을 거두며, 7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앞선 포항 원정에서는 빗속 혈투 끝에 1-1 무승부를 거뒀다. 거칠게 포항을 몰아붙이고도 아쉽게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지만 두 경기 연속 승점을 올리면서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까다로운 상대 포항에게도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인 광주는 중위권 도약을 그리고 있다.

광주는 승점 15(4승 3무 8패)로 10위에 있지만 6위에 위치한 성남FC(4승 5무 6패·승점 17)와 불과 승점 2점 차다. 매 경기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 주장 여름은 "올 시즌 처음으로 홈팬들에게 인사드리는 자리다. 만반의 준비를 해 승점 3점과

함께 무패 행진을 이어가겠다"며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남 드래곤즈는 안산 원정을 통해 승점 사냥을 재개한다.

전남은 앞선 서울이랜드와의 14라운드 홈경기에서 1-2로 지면서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이 중단됐다. 이 패배로 전남은 7위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K리그 2에서도 승점 사냥이 전개되고 있다.

승점 1점 차로 전남을 추격하던 서울이랜드가 6승 3무 5패(승점 21)로 3위. 전남이 7위까지 내려왔지만 4승 7무 3패(승점 19)로 3위와 승점 2점 차에 불과하다.

치열한 순위 싸움 속 전남의 이어진 부상이 아쉽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전남 유니폼을 입고 새바람을 불어넣었던 임찬울과 울렉에 이어 이종호도 부상을 입으면서 전남의 고민이 생겼다.

전남은 15일 오후 7시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안산 그리너스와의 2020 K리그2 15라운드 경기를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테스트 받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16일 강원FC를 상대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의 첫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지난 14라운드 인천 원정에서 엄원상의 골이 나온 뒤 기뻐하는 광주 선수들. <광주FC 제공>

보성군청 문유라·완도군청 최가연 '금빛 바벨'

2020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보성군청 문유라(30)와 완도군청 최가연(25)이 2020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유라와 최가연은 13일 강원 양구 용화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71kg급에 출전했다.

문유라는 용상에서 114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따냈고, 합계 204kg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용상 1차시기에서 105kg, 2차에서 111kg을 든 문유라는 경쟁자인 이지예(경남도청)가 113kg에 성공하자 3차 시기에서 1kg가 더 무거운 114kg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확정했다.

인상에서는 4위로 아쉽게 입상을 놓쳤다. 1차에서 85kg, 2차에서 90kg을 든 문유라는 3차시기에서 97kg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최가연은 인상에서 99kg 1위, 용상에서 108kg 3위, 그리고 합계에서 207kg으로 2위에 올랐다.

최가연은 인상에서 메달을 노렸다. 이지예가 2차 시기에서 98kg을 들자 최가연은 3차시기에서 99kg에 도전해 성공했다. 이지예가 3차시기에서 100kg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금메달은 최가연의 몫이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자일반부 71kg급 용상에서 금메달을 딴 보성군청 문유라.

창단 3년 영광FC U18팀 값진 준우승



추계고교축구연맹전 결승서 분패

영광FC U18팀(사진)이 창단 3년 만에 처음 진출한 첫 전국대회 결승에서 값진 준우승을 차지했다.

영광FC U18이 13일 합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추계고교축구연맹전 결승전에서 경기 골킥업에 0-5로 졌다.

창단 후 첫 결승 진출 성과를 낸 영광FC U18의 우승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

지난 2017년 창단한 영광FC U18은 이듬해 광

양 백운대회에서 3위, 2019년 대통령배 3위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조별 예선에서 인천 하이텍고와 순천고, 서울 장흥고를 연달아 완파하고 3전 전승으로 16강에 직행했다

이어 경기 능곡조를 5-2로 꺾었고, 대구 청구고에는 2-1 승리를 거두며 4강에 진출했다. 경기 향공고와 치른 대회 준결승전에서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이기며 창단 후 첫 결승 진출을 이뤄냈다.

/영광=이종운 기자 jylee@kwangju.co.kr

마스터스 골프 11월 무관중 개최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올해는 갤러리 입장 없이 치러진다.

마스터스 골프 대회를 여는 미국 오거스타 내셔널의 프레드 리틀리 회장은 13일(한국시간) "올해 마스터스에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4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마스터스는 이번 시즌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11월로 개최 시기를 미뤘다.

관중 입장 여부를 그동안 정하지 못했던 마스터스가 올해 대회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2020시즌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는 모두 무관중 경기로 열리게 됐다. 9월 US오픈도 역시 갤러리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7월로 예정됐던 디오픈은 취소됐다. 올해 마스터스는 11월 12일에 개막한다. /연합뉴스

NBA 클리퍼스, 덴버 꺾고 서부 콘퍼런스 2위 확정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가 덴버 너기츠를 꺾고 서부 콘퍼런스 2위를 확정했다.

클리퍼스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키시미의 ESPN 와이드 월드 오브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2019-2020 NBA 정규리그 경기에서 124-111로 승리했다.

공격 삼각 편대 폴 조지(27점 4리바운드 4어시스트), 커와이 레너드(26점 5리바운드 3어시스트), 루 윌리엄스(23득점 7어시스트)가 20득점 이상씩 해주며 승리를 이끌었다. 이비차 주바츠는 15점 12리바운드로 골 밑에서 힘을 보탰다.

이로써 클리퍼스는 48승 23패가 돼 남은 정규리그 한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서부 콘퍼런스 2위를 확정했다.

클리퍼스는 다음 주 시작하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서부 콘퍼런스 7위 댈러스 매버릭스와 격돌한다.

46승 26패가 된 덴버는 클리퍼스에 2.5경기 차 뒤져 서부 콘퍼런스 3위로 플레이오프에 나선다.

4쿼터 들어 희비가 엇갈렸다.

클리퍼스는 주전들을 뺀 덴버를 상대로 4쿼터 초반 윌리엄스의 레이업으로 95-94, 재역전에 성공한 뒤로는 한 번도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승부를 마무리했다.

앞서 인디애나 페이스서는 휴스턴 로키츠와의 경기에서 주포 T.J.워렌 없이도 108-104로 이겼다.

ESPN에 따르면 시즌 재개 후 맹활약 중인 워렌은 오른팔 족저근막염으로 이날 경기에는 뛰지 않았다. 다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플레이오프 출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턴의 제임스 하든은 3점포 7개를 쫓는 등 45득점 17리바운드 9어시스트로 활약했지만, 팀 패배로 빛을 잃었다. /연합뉴스

호날두 연봉 443억원... 피를로 감독의 17배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명가' 유벤투스 선수들의 몸값이 공개됐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연봉은 무려 2800만 파운드(약 4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13일(한국시간) "유벤투스 선수들의 연봉이 모두 공개됐다"며 "호날두가 가장 많은 돈을 받는다. 그의 연봉은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안드레아 피를로 감독의 17배에 이른다"고 전했다.

더선은 피를로 감독과 1군 선수들을 포함한 23명의 연봉을 공개했다. 역시 최고의 스타 선수인 만 큼 호날두의 연봉은 2800만 파운드로 팀 내 최고였다. 두 번째로 연봉이 높은 마테이스 데리흐트

(720만 파운드) 4배 가까이 된다.

호날두와 데리흐트에 이어 곤살로 이과인, 마랄렘 파니치(이상 670만 파운드), 파울로 디발라(650만 파운드), 애런 램지, 아드리안 라비오(이상 630만 파운드), 레오나르도 보누치(580만 파운드), 보이치에흐 수헨스키, 사미 카디라(이상 580만 파운드)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 유벤투스의 지휘봉을 잡은 피를로 감독의 연봉은 160만 파운드로 전체 23명의 명단 가운데 20번째를 차지했다. 피를로 감독 밑으로 메리프 데미탈(160만 파운드), 잔루이지 부폰(130만 파운드), 카를로 핀소글리오(20만 파운드)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휴가 끝? 작전 시작!

2020.08.12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2관	오케이 마담
3관	강철비2: 정상회담, 인셉션
4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5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6관	오케이 마담
9관	오케이 마담
7관	씨네커플
8관	씨네커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림 신작: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No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Prayer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